2019. 2. 7 448호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외로운 노인에 24시간 전화 서비스

산업·경제 기업 스스로 '일하는 방법 개혁' 유도

문화·관광 "전통요리 배우는 외국인 요리사 늘린다"

사회·복지 아동보호사 처우개선…심리피해 예방, 업무과중 해소
저소득·소외계층 레저·문화활동 전폭 지원

도시계획·주택 30㎞ 지하도로, 교통·경제 중심지로 성장
방치된 군기지, 특색있는 복합공간으로 '시민 사랑'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케이프타운	김소망	**시애틀**	강민규	**오사카**	권용수
암스테르담	장한빛	**시카고**	김영준	**베이징**	박성은
베를린	신희완	**스톡홀름**	문선우	**상하이**	문혜정
	유진경		허윤회	**에드먼턴**	장지훈
	홍남명	**바르셀로나**	진광선	**토론토**	고한나
뉴욕	윤규근	**런던**	오도영		김용훈
	이수진	**버밍엄**	정기성	**보르도**	김준광
	이정근	**피렌체**	김예름	**파리**	배세진
	정수지	**자카르타**	박재현	**시드니**	정용문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도쿄**	박재호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이용원		

외로운 노인에 24시간 전화 서비스

실버네츠, 응답자 78%가 독거노인…사회적 고립 방지 효과

독일 베를린市 / 사회·복지

독일 베를린市는 독거노인 비율이 높아지고 외로움과 고독사 등 노인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대화를 원하는 노인 누구나 24시간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실버네츠-그냥 한번 대화합시다' 서비스를 시작함. 2018년 연말에 시범운영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독거노인이었고 참여자의 65%가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2019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

배경

○ **높은 독거노인 비율과 외로움의 심화**

- 베를린에 사는 65세 이상 여성의 50%가 독거노인이며, 2017년 독일 전체 노인 중 여성의 45%, 남성의 20%가 파트너 없이 혼자 지낸다고 응답(독일 통계청)
-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인도주의 협회 '실버네츠'(Silbernetz: 노인 네트워크)에 따르면 외로움을 겪는 60~90세의 노인의 수는 800만 명으로 추산
- 독일 노인들은 자신이 외롭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사회적 터부로 여김
- 또한, 기존의 노인돌봄 전화상담은 노인의 위기상황이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둘 뿐, 노인과의 접촉 자체를 다루지는 않음

○ **영국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더 실버라인'(The Silverline)을 벤치마킹한 프로젝트**

- 실버네츠의 창립자인 엘케 실링(Elke Schilling)은 7년간 베를린 미테(Mitte) 지역의 노인대표로 활동했으며, 이웃의 고독사를 계기로 프로젝트를 구상
  - 실링은 자신의 이웃이 고독사 후 3개월간 방치된 사건에 충격을 받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영국의 성공적 프로젝트를 베를린에 도입하기로 결심
- 더 실버라인 프로젝트는 영국 멘체스터에서 시작되었으며, 영국 전역의 고독한 노인을 대상으로 매일 최대 1,500건, 매주 1만 건의 전화서비스를 제공

○ **정부지원을 받아 2018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19년부터 정식 서비스**

- 노년기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버네츠 프로젝트는 2018년 5월, 건강·관리·평등 상원부서에서 8만 유로(1억 300만 원)를 지원받음
- 2019년 본격 시작을 앞두고 2018년 12월 24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 전화연결을 24시간 활성화하여 고독한 노인에게 대화 기회를 제공

주요 내용: 3단계 실버네츠 서비스

○ 1단계: 실버네츠 – 그냥 한번 대화합시다

-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은 실버네츠 대표번호(0800-4708090)로 24시간 무료 전화를 걸 수 있음
  - 24시간 제공되는 이유는 밤에 고독감이 더욱 커지고 전화 수요도 많아지기 때문
- 특별한 위기상황이나 문제가 없어도 대화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통화가 가능하며, 모든 통화는 익명으로 진행되고 비밀은 보장됨
- 협회에서 공감 대화와 격려 방법 훈련을 받은 상담사들이 노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격려하며, 1차적인 정보를 제공
  - 이후 요청에 따라 2단계 서비스인 실버네츠 친구를 노인에게 소개

○ 2단계: 우정 서비스 – 실버네츠 친구

- 실버네츠 친구는 정기적인 통화 서비스로, 상담사가 노인과 일주일에 한번 정해진 시간에 통화를 1시간가량 진행
- 우정서비스는 노인과 정기적으로 신뢰를 쌓는 작업으로 비밀을 보장하고, 노인이 고립의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도록 장려하는 과정
- 노인이 방치되어있거나 폭력에 놓여있을 때는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

○ 3단계: 실버인포 – 이웃 간의 연결

- 실버인포 서비스는 지역 내 노인부양 서비스기관과 협력하여, 기관이 닿지 못하는 고립된 노인을 기관과 연결해주는 역할
- 베를린의 도움 안내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관리

○ 실버네츠는 다문화적 방향성을 추구

- 외로움은 종교·문화·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마주하는 일임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다양한 문화 출신으로 구성함

시범운영 결과

○ 2018년 연말에 진행한 시범운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임

- 연말에 진행한 이유는 이 시기에 외로움을 느끼는 독거노인이 많기 때문
  - 독일의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은 가족이 모이는 연휴이자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은 더욱 외로움을 호소
- 실버네츠 협회는 노인의 외로움 문제에 관한 인식을 고취하고자 노년기의 외로움을 알리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언론사와 지하철 등에 홍보

- 발신자의 평균 나이는 65세로 2/3가 여성이었으며, 응답자의 78%는 독거노인으로 확인
- 대부분의 발신자(88%)는 단순 대화를 목적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물질적 우려(25%), 정신적 두려움(11%), 자살 충동(8%), 폭력 문제(5%) 때문에 통화를 건 사례도 있음
- 24%의 노인에게 2단계 서비스인 실버네츠 친구를 소개
- 응답자의 65%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성공적인 결과라는 평을 받음

[그림 1] 실버네츠 홍보 플래카드

https://www.berlin.de/sen/gpg/service/presse/2018/pressemitteilung.769744.php

https://www.berlin.de/special/familien/5128680-2864562-silbernetz-hotline-fuer-einsame-senioren.html#slide3

https://www.silbernetz.org/angebot.html

https://www.silbernetz.org/zahlen-alterseinsamkeit.html

https://www.berliner-zeitung.de/berlin/telefonhotline-von-silbernetz-e-v--wenn-einsame-senioren-jemanden-zum-zuhoeren-brauchen-31740670

홍 남 명 통신원, dangmu7722@gmail.com

기업 스스로 '일하는 방법 개혁' 유도

일본 교토市 / 산업·경제

일본 교토市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의 '일하는 방법 개혁' 정책에 발맞춰, 시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일하는 방법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임. 기업이 스스로 근무 환경을 진단하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자기진단표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사업을 지원하거나 결과가 좋은 기업을 홍보해 우수 인력의 충원을 유도

배경

○ 일본은 기업의 일하는 '방법 개혁 추진'을 준비 중

- 2019년 4월부터 '일하는 방법 개혁 추진을 위한 관계 법률 정비에 관한 법률'(働き方改革を推進する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이 단계적으로 시행

○ 교토시는 정부 정책과 발맞춰 시내 중소기업의 주체적 개혁을 지원

- 시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일하는 방법 개혁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착실히 임해야만 일하는 방법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
- 기업이 스스로 '일하는 방법 개혁' 현황과 목표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자기진단표를 제공하고, 진단 결과를 웹사이트에 올려 기업을 홍보해주는 제도를 도입
  - 이 제도는 경제단체 등의 협력을 얻어 도입되었고, 해마다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제도의 재검토나 지속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

주요 내용

○ 일하는 방법 개혁의 '실현 계획', '행동', '실적·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기진단표를 제공

- 웹사이트 '교토의 기업 방문'(京のまち企業訪問)에 등록된 기업이 대상
- 시는 웹 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기업이 2020년 말까지 일하는 방법 개혁을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자기진단표는 일하는 방법 개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교토기업이 '일하는 방법 개혁' 정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검토 사항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

- 주요 진단 내용은 개혁 의지 확인과 관련 제도 시행 여부 등
  - 기업이 일하는 방식을 개혁할 의지가 있고, 명확한 방침과 목표를 세웠으며, 관련 부서나 담당자를 두고 있는지 등의 여부
  - 직원 의견 수렴, 장시간 노동 방지, 휴가 사용 촉진, 일과 육아의 병행 가능,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여성·노인·장애인 고용 등을 추진하는 제도의 시행 여부

○ **진단 결과를 기업홍보에 활용해 우수인재 채용을 지원**

- 각 기업의 자기진단 결과를 웹사이트에서 알려 기업의 정보와 매력을 학생을 비롯한 구직자에게 전해 교토기업의 주역을 담당할 인재를 확보
- 2019년 2월경부터 웹사이트에 각 기업의 달성 상황을 알기 쉽게 소개할 예정
  - 개혁 달성도에 따라 기업 정보 게재 순서를 결정할 예정

○ **일하는 방법 개혁을 3단계로 나누어 제시**

- 자기진단표를 '도전편', '실전편', '실현편'의 3단계로 나누어 하나씩 해 나갈 수 있도록 설계하여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
- 기업이 PDCA(Plan-Do-Check-Action) 모델에 따라 자체적으로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이 자기진단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사무국에서 다음 단계로 유도**

- 기업이 1단계 자기진단표(도전편)를 작성해 이메일 등으로 담당부서에 제출
- 사무국이 제출 내용을 확인하고, 판정 기준을 충족하면 2019년 2월경부터 즉시 웹 사이트에 '일하는 방법 개혁 도전기업'으로 소개
- 사무국이 다음 단계의 자기진단표(실전편)를 송부
  - 실전편 단계를 수행할 때는 전문 지원인력이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개혁을 지원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

○ **1기 운용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해 다음 해에 2기 운용을 시작할 예정**

- 시는 첫 제도 운용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진단표 수정, 웹사이트 직접 입·출력 시스템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시행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계획
- 또한, 각 기업의 자기진단 결과는 통계적으로 처리한 후 일하는 방법 개혁 추진을 비롯한 중소기업지원정책에 활용할 예정

http://www.city.kyoto.lg.jp/sankan/page/0000243457.html

https://www5.city.kyoto.jp/kigyo/kg_101.cgi?CT=10

https://kyoto-wakamono.org/wp/wp-content/uploads/2018/10/hataraki_manual.pdf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전통요리 배우는 외국인 요리사 늘린다”

일본 교토市 / 문화·관광

일본 교토市는 일본 전통요리를 배워 다른 나라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요리사에게 일본 요리점 취업을 허용하는 특례 조치를 시행 중이며, 최근 이 제도에서 수용하는 외국인 요리사의 자격 기준과 수용 인원을 늘려 일본요리의 세계적 보급과 확산에 힘쓰는 중

배경

○ **교토시 특구에 한해 외국인 요리사의 일본요리점 취업을 허가**

- 일본은 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일본요리점 취업이 제한되어 있지만, ‘교토시 지역활성화 종합특구’ 지정 이후 2013년부터 제한이 해제
  - 교토시는 2011년 12월 ‘교토시 지역활성화 종합특구’를 지정받고, 이후 규제 특례 조치 등에 관해 국가와 협의를 추진
  - 2013년 11월 외국인이 일본요리를 일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치를 포함한 종합특별구역계획을 인정받아 외국인의 일본요리점 취업이 가능해짐

주요 내용

○ **일본 전통요리의 해외보급을 촉진하는 ‘특정 전통요리 해외보급사업’ 특례 조치**

- 외국인 요리사가 교토시 내 일본요리점에서 일하면서 일본 전통요리의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함
- 참여한 외국인 요리사가 귀국 후에 일본요리를 세계에 알림으로써 일본 전통요리의 해외 보급을 도모하는 사업
- 현재까지 12명의 외국인 요리사가 이 사업을 활용

○ **기존의 특정 전통요리 해외보급사업 자격 대상과 적용 기준**

- 수용사업자는 외국인 요리사 수용능력이 있는 일본요리점 중 교토시의 지정을 받은 곳
- 수용사업자는 외국인 요리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일본인 요리사와 같은 금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해야 함
- 외국인 요리사는 일본요리 조리기능이 있고, 귀국 후에 일본요리를 세계에 알릴 의사를 가지고 있을 것

- 외국인 요리사는 해외 레스토랑 등에서 업무상으로 파견되고, 귀국 후 복직할 것
- 외국인 요리사의 수용 기간은 5년 이내, 수용 인원 수는 1사업자 2명 이내

○ **기존 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수용 요리사의 수를 확대하고 자격조건을 완화**

- 2019년 1월 8일에 더 많은 외국인 요리사를 받아들이고 육성하고자 '종합특별구역 기본방침의 일부 변경'을 승인
- 현행 수용 대상 외에 농림수산성이 정하는 '해외에서 일본요리 조리기능 인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버 이상의 조리기능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추가
  - 실버 이상의 조리기능 인정 기준은 일본요리학교 등 졸업자 또는 실무경험이 1년 정도인 자
- 한 사업자가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요리사의 수를 '2명 이내'에서 '3명 이내'로 확대

http://www.city.kyoto.lg.jp/sankan/page/0000246392.html

http://www.city.kyoto.lg.jp/sankan/page/0000235190.html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아동보호사 처우개선…심리피해 예방, 업무과중 해소

호주 빅토리아州 / 사회·복지

호주 빅토리아州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업무 과부하와 심리적 피해 등의 위험에 노출된 아동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보호 종사자 웰빙 프로그램'(Child Protection Wellbeing Program)을 도입하여 아동보호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신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해 심리피해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업무과중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배경 및 목적

○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업이지만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아동보호사**

- 아동보호사는 정신보건, 교육, 사법, 홈리스, 원주민, 가정폭력, 난민, 고용 등 제반 분야에 걸쳐 위기 상황에 있는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해 일하는 이들
- 인력의 절대다수는 여성이며,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 평균에 견줘 종사자 나이가 적은 편
- 업무 특성상 업무 과부하, 스트레스, 심리적 피해 등의 위험이 큰 편
  - 가령,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 아동을 관찰하고 이들을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은 개인적인 선호와 직업적인 판단 간의 긴장을 유발하며, 정신적인 외상을 초래하기도 함
  - 또한, 이들의 결정은 종종 클라이언트나 지역사회의 비난을 받아 직업 자체의 사회적 존중감이 떨어지기도 함

○ **아동보호사의 직무상 위험과 지역사회의 인식이 인력수급에 부정적 영향**

- 아동보호 서비스 수요는 크게 증가하여 현재 인력의 서비스 능력을 초과하고 있지만, 아동보호사 인력 공급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 2009년과 2016년 사이에 아동보호 사건 접수는 121% 증가했지만, 아동보호사는 26%만 늘어나 결과적으로 아동보호사의 업무량이 42% 증가
  - 2016~2017년 한 해 아동보호사의 16.7%가 이직했으며, 이 수치는 전체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 이직률(10.1%)에 비해 훨씬 높음
- 이에 따라, 아동보호사의 충원과 유지가 아동보호 사업의 최우선 순위가 됨

주요 내용

○ **'아동보호 인력관리전략'**(Child Protection Workforce Strategy 2017~2020)**을 수립·시행**

- 주정부가 아동보호사를 효과적으로 충원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수립
- 이 전략은 크게 다섯 가지 우선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표 1] 아동보호사 인력관리전략 주요 내용

우선 사항	기대 결과	실행계획
최적의 아동보호사 유인	– 양질의 아동보호사 충원으로 아동보호서비스 역량 강화 –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모집 방안 마련	– 아동보호사에 관한 인식 개선 캠페인 – 아동보호사 모집 마케팅 전략 재수립과 목표치 설정 – 아동보호사 보유를 위해 기존 인센티브 정책 재검토 – 다문화 출신 아동보호사 유인 방안 수립
직업 정체성 확립	– 아동보호의 사회적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고히 인식 – 전문직으로서의 아동보호 실천 규범 확립	– 아동보호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학위 규정 – 아동보호 실천 규범을 아동보호사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직무 연수 프로그램 확립
아동보호사의 성장과 계발	–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 심화	– 신입 아동보호사를 위한 입문 프로그램 개발 – 현행 직무 학습 관리 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개선 – 직무 학습과 계발의 중요성을 조직적으로 인정하는 문화 고착
아동보호사의 참여와 보유	–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업무 부하 모델 구축 – 멘토링과 지지적 슈퍼비전 강화	– 업무량 감소를 위한 대안적 업무 수행 방안 고안 – 현행 슈퍼비전 체계의 지지기능과 책임감을 개선 – 근속 휴가 제도(Career Break Opportunities) 개선
아동보호사의 건강, 안전, 웰빙 보장	– 작업장 안전과 웰빙 증진 – 일과 삶의 균형	– 아동보호사의 특수한 욕구에 따른 맞춤형 심리적 지원 모델 개발 – 조기 개입과 자기 보호 능력 강화

○ **아동보호 인력관리전략 시행에 따라 '아동보호사 웰빙 프로그램'을 핵심 프로그램으로 도입**

- 아동보호사의 정신건강을 강화하고 안전한 작업장을 구축하도록 설계
- 아동보호사 회복탄력성 훈련(Resilience Training) 제공
  - 아동보호사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트라우마 인지 능력을 강화하고 대처 능력을 개발
  - 아동보호사는 연간 6회까지 정신건강 의사의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특수 지원팀(Specialist Support Team) 신설
  - 주정부 보건복지부 (Health and Human Services) 내에 아동보호사 지원팀을 신설하고,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 서비스를 제공
- 아동보호 인력관리전략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아동보호 운영위원회'(Child Protection Executive Group) 구성
- '아동보호 실행전략'에 따라 분기별로 진행 상황을 점검

https://www.premier.vic.gov.au/looking-out-for-victorias-child-protection-workforce/

http://childprotectionjobs.dhhs.vic.gov.au/sites/default/files/inline-files/CP_workforce_strategy_2017%E2%80%932020.pdf

https://www.audit.vic.gov.au/sites/default/files/2018-05/20180510-Child-Protection.pdf

정 용 문 통신원, jungraphael@gmail.com

저소득·소외계층 레저·문화활동 전폭 지원

캐나다 에드먼턴市 / 사회·복지

캐나다 에드먼턴市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시민이 레저와 문화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레저 액세스 프로그램'(LAP: Leisure Access Program)을 도입해 시내 18개 레크리에이션 센터를 비롯한 문화시설 무료입장과 강습 프로그램 할인을 제공함. 또한, 이동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이 취업·교육·레저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중교통 보조 프로그램도 병행

레저 액세스 프로그램(LAP) 개요

○ **저소득·취약계층에 레저·문화시설 무료 이용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

- 에드먼턴 거주자 중 소득 기준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나 난민 등 취약계층이 대상
- 레크리에이션 센터 등의 레저·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멤버십 프로그램
  - LAP에 참여하는 모든 시설 입장이 무료
  - 시설 내 교육프로그램 수강은 어른은 최대 3개, 어린이는 4개까지 75% 할인
- 프로그램 카드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2017년 9월부터는 관련 시설로의 이동을 돕는 대중교통 보조 프로그램도 병행**

주요 내용

○ **가입 자격은 에드먼턴 거주 증명이 가능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중증장애인 소득보증 프로그램의 수혜자, 캐나다 연금 플랜의 장애 혜택 수혜자, 앨버타 주정부 소득 지원프로그램 대상자, 정부 보살핌 아동
- 신규 이민자 또는 난민 중 캐나다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이고 세금신고서를 제출한 이력이 없는 사람
  - 캐나다에서 임시 거주 비자를 소지하여 이미 세금신고를 한 이력이 있는 가구가 이민자 신분이 된 때에는 해당 사항이 없음
- 가구 소득이 [표 1]에서 제시된 기준 이하의 가구
  - 가구의 부부합산 국세청 신고 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한선은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름
  - 기준 소득은 캐나다 국세청의 저소득 가구 기준에 근거해 변경될 수 있음

[표 1] LAP 프로그램 소득기준표

(단위: 캐나다달러(CAD))

가족구성원 수	소득상한	월간 프로그램 소득상·하한 (차상위계층 대상)
1명	27,872 (2,375만 원)	27,873~31,673(2,699만 원)
2명	34,698 (2,956만 원)	34,699~39,430(3,360만 원)
3명	42,658 (3,635만 원)	42,659~48,475(4,130만 원)
4명	51,792 (4,413만 원)	51,793~58,855(5,014만 원)
5명	58,742 (5,005만 원)	58,743~66,753(5,687만 원)
6명	66,251 (5,645만 원)	66,252~75,285(6,414만 원)
7명 이상	73,761 (6,284만 원)	73,762~83,819(7,141만 원)

○ 차상위계층에겐 월간 입장료 할인 프로그램을 제공

- 상대적 불이익을 고려해 차상위계층에게는 월단위 시설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부여
  - 월간 입장료 정상가격은 개인 74CAD(63,000원), 가족 218CAD(186,000원)이지만, 차상위계층은 개인 20CAD(17,000원), 가족 70CAD(59,500원)

[그림 1] 에드먼턴 시내의 한 레크리에이션 센터

[그림 2] 포트 에드먼턴 파크

대중교통 보조 프로그램(Ride Transit Program)

○ **저소득·소외계층이 대중교통 월이용권을 싼값에 살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 이들이 이동능력 때문에 교육·취업·레크리에이션 기회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
- 대상자는 현행 100CAD(85,000원) 상당의 월간 이용권을 35CAD(29,750원)에 구입할 수 있음
  - 주정부와 시정부가 협력하여 2017년 9월부터 시행
- 저소득층의 기준과 혜택 대상은 레저 액세스 프로그램과 비슷한 수준

https://www.edmonton.ca/programs_services/leisure-access-program.aspx

https://www.edmonton.ca/ets/subsidized-transit.aspx

https://www.edmonton.ca/activities_parks_recreation/meadows.aspx

https://www.fortedmontonpark.ca/about/master-plan-update/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30㎞ 지하도로, 교통·경제 중심지로 성장

캐나다 토론토市 / 도시계획·주택

캐나다 토론토市는 민간 주도로 개발되었던 도심 지하도로를 도시개발 계획에 포함시켜 교통·경제의 중심지로 성장시킴. 도심 주요건물과 연결되어 있으며 총 길이 30㎞에 달하는 지하도로는 계절적 요인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보행 네트워크이자 관광·상업 공간으로 도시 경제를 이끄는 기반이 되었으며, 앞으로 스마트시티 개발계획의 핵심 공간이 될 예정

주요 내용

○ **민간 주도로 만들어진 토론토 도심 지하도로, 시정부의 협력으로 확장**

- 토론토 지하도로는 민간 회사(T.Eaton)가 메인 빌딩과 부속 건물을 지하터널로 연결하면서 1900년 처음 만들어짐
- 각각의 지하터널이 생성되다가 1927년 유니언 기차역(Union Station)과 로열 요크 호텔(Royal York Hotel)이 연결되었고,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
- 1987년부터 토론토시가 공동 협력기관이 되어, 지하터널을 도심 전체의 시스템으로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제공하고 전략을 수립

○ **토론토시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계획에 도심 지하도로를 포함**

- 개별 소유주의 필요에 따라 개발되던 도심 지하도로를 대상으로 한 시정부 차원의 분석이 시작
  - 역사와 경제 분야 연구를 비롯하여 도심 지하도로의 한계와 가능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정책 제시와 설계전략 수립
- 1995년부터는 개인 토지 소유자와 법적 계약을 맺어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을 바탕으로 대중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지하도로 접근을 가능하게 함
  - 여기에는 터널의 치수, 사용 재료, 간판의 일관성 등을 보장하는 설계 지침이 포함
- 시정부는 토론토 금융 특구(Toronto Financial District BIA)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지하도로를 개발
- 시는 PATH라는 이름과 로고를 등록하고, 디자인 회사를 고용해 시스템 전반을 조정하여 지하도로의 대중 이해도와 도심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

○ **스마트폰 앱 개발로 지하도로 활용도가 더욱 상승**

- 기존 도심 지하도로는 35개의 개별 소유주가 지역별로 분리 운영하여 전체를 아우르는 정보가 시민에게 제공되기 어려운 문제 존재
- 이에 따라, 시정부는 시민의 정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도로 안내판과 지도를 제작·배포하고,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
- 도시의 주요 시설과 관광지가 표시된 지하도로 지도를 제작
  - 대중교통 허브와 인근 지역 정보를 명료하게 표시하고, 색상 등의 다양한 그래픽 효과를 사용해 연결지점과 도보 소요시간 등을 표시

○ **지하도로 시스템 전반을 조정해 효율을 높임**

- 지하도로 시스템의 전반적 개선으로 도심 산업, 운송, 대중교통, 관광, 정보통신, 고객 서비스와 같은 도시의 핵심 서비스를 강화하여 도심 공간의 효율을 높임

성과

○ **계절적 변화에도 안전성을 담보로 도심 경제를 이끄는 기반**

- 혹독한 추위와 더위에서도 보행자의 안전성을 담보하여 대중교통의 중요한 보완책 역할을 수행
  - 매일 20만 명이 넘는 보행자의 이동을 도심 지하도로가 담당
  - 겨울에는 난방이 되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있어서 보행자 중심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 그 외에 관광·여가 활동의 기반시설로 도심 경제에 많은 이바지
- 시정부는 이러한 부가적 효과를 인지하고, 지하도로의 건설·보수·유지 노력을 지속 시행

○ **도시 지하철 노선의 구호 대책 기능도 수행**

- 도시 인프라 개발 속도가 도심 인구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교통 시스템의 문제는 토론토시의 중요한 이슈
- 계절적 온도 변화에 민감한 지하철이 자주 고장나는 시기에는 통근자들에게 지하도로가 하나의 해결책으로 기능

○ **관광과 여가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전략의 기반으로 활용**

- 도시 중심부 75개 빌딩을 연결한 세계에서 가장 긴 지하쇼핑센터
  - 주요 지하철역을 비롯한 오피스 타워, 시내 관광명소 등 도심 주요건물과 연결되어 있고 1,200여 개의 식당이 들어선 길이 30㎞, 면적 27만 9,360㎡ 규모의 세계에서 가장 긴 지하쇼핑센터

- 지하도로로 경험하는 토론토 여행 프로그램이 생길 정도로 토론토 관광산업의 주요 인프라로 부상
  -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과 지하철·기차역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 각종 엔터네인먼트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거의 모든 토론토 관광명소를 연결
- 통근자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활성화되어 4,600개의 일자리가 창출
- 토론토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와 지하도로의 확장으로 개발업자와 임차인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도시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속가능한 미래 도심계획의 중심이 됨**

- 토론토 교통 기반정책 중 하나인 '토론토 보행전략'(Toronto Walking Strategy)과 연결되어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발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 지하도로는 자동차 의존율 감소, 지하철 유지보수 비용 절감, 걷기를 바탕으로 한 시민 삶의 질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많고,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인프라
- 토론토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의 핵심
  - 구글과 함께 세계 제일의 스마트시티를 계획하고 있는 토론토시는 교통·인프라·건설 분야의 최신 기술을 결합하여, 인터넷으로 구축하는 세계 최초의 스마트시티 환경을 조성할 예정
  - 이미 형성된 토론토 지하공간은 계절의 변화와 상관없는 유기적인 커뮤니티 형성의 중요한 기반으로 떠오르고 있음
  - 지하공간 마스터플랜은 단순한 물리적인 확장뿐 아니라 확장되어야 할 조건(경쟁력)을 염두에 두고 위의 도시개발 계획과 함께 진행 중

https://www.toronto.ca/explore-enjoy/visitor-services/path-torontos-downtown-pedestrian-walkway/
http://torontofinancialdistrict.com/new-path-map-2018/
https://www.iphoneincanada.ca/news/toronto-path-map-ios-app/

고 한 나 통신원, hannahko0301@gmail.com

방치된 군기지, 특색있는 복합공간으로 '시민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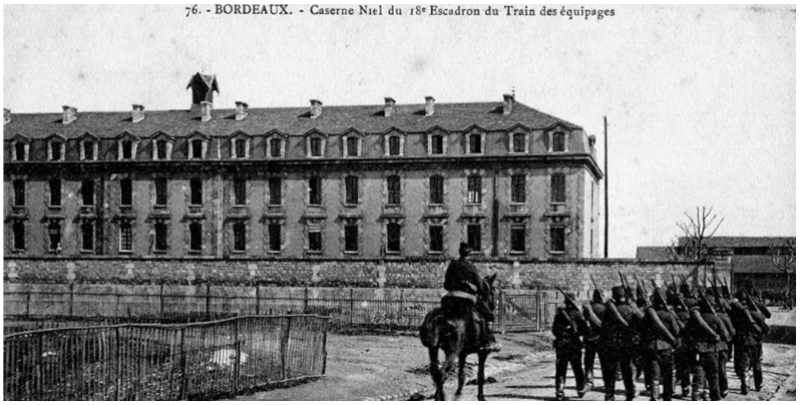
프랑스 보르도市 / 도시계획·주택

프랑스 보르도市에 있는 복합공간 '다윈'(Darwin)은 방치되어 있던 군기지를 업무공간, 스포츠·레저시설, 재활용 공방, 도심농장, 그래피티 미술관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새로운 개념의 시민공간으로, 올해로 12년째 많은 주민의 사랑을 받고 있음

배경

○ 1877년 건설된 니엘 군기지(Caserne Niel), 2005년부터 방치

- 니엘 군기지는 보르도와 인근 지역 군시설을 집대성할 목적으로 1877년 건설
- 최근까지 군기지로 계속 활용되어 오다가, 2005년 군부대 이전 이후 방치
  - 2년여 동안 빈 건물에 그래피티와 낙서 등이 발생



[그림 1] 니엘 군기지 과거 모습

- 2007년 개발구역에 묶여 부지 내 건축물들이 철거될 위기에 처하자, 민간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사업자인 '에볼뤼씨옹'이 부지를 매입
  - 당시 대형건설사가 대상부지에 주거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지만, 에볼뤼씨옹이 보르도 도시공사 측과 협의 끝에 22,000㎡ 면적의 부지를 매입
- 장소성을 그대로 둔 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끌어들여 새로운 장소를 탄생
  - 새로운 나들이 공간으로 12년째 시민들의 각광을 받음

주요 내용

○ **기존 건물과 장소성을 그대로 살린 새로운 복합 단지를 조성**

- 건물은 물론 건물 벽마다 빈틈없이 뒤덮인 그래피티도 모두 살려 장소성을 유지
- 기존 공간 안에 갖가지 문화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만 차용해 새로운 개념의 장소를 탄생시키고, 이 단지를 '다윈'이라고 명명
  - 단, 입구에 있는 대표건물만 리노베이션을 하여, 상점·카페·사무실 등을 입주
- 원칙적으로 친환경 단지를 표방
  - 유기농 농산물 식료품점과 수제맥주 펍이 있고, 환경오염을 풍자하는 전시물·그래피티·스트리트 아트 등이 이목을 끔
  - 단지 내에 놓인 벤치나 테이블 등도 주워온 팔레트나 폐목재 등을 활용해 제작

○ **다윈은 기존에 볼 수 없던 형태의 장소로서, 딱히 규정할수 있는 용도가 없음**

- 업무공간: 650여 명이 다윈 단지 안에서 일을 하며, 총 50여 개의 업체와 단체가 입주 중
- 먹거리와 마실거리: 신선한 유기농 식재료를 판매하는 식료품점과 간단한 먹거리를 파는 푸드코트, 직접 만든 수제 맥주를 파는 펍 등이 있고, 곳곳에 벤치와 피크닉 테이블이 있어 주말 가족 단위 나들이객에게 인기
- 스포츠 시설: 롤러 스케이트트 클럽, 스케이트 보드장, 바이크 폴로 등 젊은이들이 즐기는 X 스포츠와 함께 요가·마사지 등도 즐길 수 있음
- 재활용 아틀리에: 버려진 자전거를 수거해 부품을 재활용하는 자전거 재활용 전문 아틀리에가 있어 수리는 물론이고 커스텀 자전거 제작도 할 수 있음

[그림 2] 재탄생한 니엘 군기지의 다채로운 모습

- 열린 하늘 미술관: 니엘 군기지가 방치되었던 시기에 거리 예술가들이 벽면마다 그려놓았던 예술적 그래피티를 감상

- 이곳의 그래피티는 낙서로 치부하기엔 예술적 가치가 높으며, 사회문제나 환경 오염 등을 풍자하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 많음
- 다윈 단지 조성 시 이를 지우거나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방문객들이 관람할 수 있게 하였으며, 운이 좋으면 예술가가 작업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도 있음

[그림 3] 다윈 단지 내 그래피티 작품들

- 도심 농장: 리빙랩(Living Lab) 형태의 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도심에서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는 법 등을 대중에게 전파하는 것이 주요 목적
- 문화행사 개최: 부지의 넓은 면적은 콘서트나 각종 행사를 하기에 매우 적합하며, 지난해 음악페스티벌이나 독립영화제 등을 성황리에 개최

○ **아직 남아 있는 폐건물의 활용 방안 구상 중**

- 현재 사용 중인 메인 건물과 쌍둥이 격인 맞은편 건물을 리노베이션해 유스호스텔, 루프톱 레스토랑, 문화 전시공간, 아틀리에 등으로 꾸밀 계획

https://darwin.camp

https://fr.wikipedia.org/wiki/Darwin_(%C3%A9co-quartier)

https://www.capital.fr/votre-carriere/bordeaux-darwin-lancienne-caserne-ou-il-fait-bon-travailler-1316302

https://www.bordeaux-tourisme.com/Decouvrir-Bordeaux/Incontournables/Darwin-Ecosysteme

https://caserneniel.org

김 준 광 통신원, junkwang.kim@gmail.com

세계도시동향 제448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19년 2월 7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출판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담당: 정연우(02-2149-1017, cyw797@si.re.kr)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